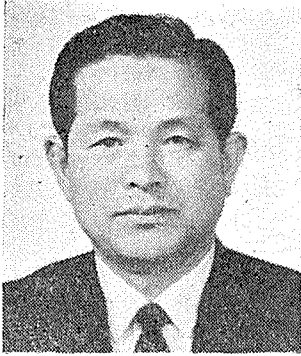


◆ Micro-Library and National Reading Movement

마을 文庫와 國民 讀書 運動

嚴 大 變

(마을 文庫本部 國民 讀書聯盟 事務總長)



머 릿 말

現代의 特性을 「情報의 時代」로 규정하고 세계적으로 이의 效率의 活用如何가 국가발전의 열쇠가 되고 있는 오늘 날 「값비싼 무더기(帙)책은 있되 出版市場으로서의 書店은 없고, 冊을 가구로 장식하는 사람은 있되 읽는 이가 없고, 소수의 선택할 줄 아는 독자는 있되 원하는 單行本이 없는 讀書不在의 시대」가 또한 우리의 現實이다.

무릇 社會運動이란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을 逆說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 한다면, 지난 1~2년간에 讀書하는 團體, 機關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따지고 보면 요즘 우리 사회가 얼마나 冊을 읽지 않는가를 말해주는 셈이다.

冊을 얼마나 안 읽는가를 측정할 만한 精確한 기준이나 讀書量에 대해서는 아직 確立된 調查가 없지만 그 冊 안 읽는 要因을 分析하여 가능한 처방을 연구하고 독서를 생활화하여야 함은 우리의 긴급한 당면과제이다. 이에 20년간 圖書館과 讀書運動에 중사해 온 筆者로서 평소 느끼던 점을 정리하고 현재 몸담고 있는 마을 文庫와 國民 讀書聯盟의 活動狀況 및 그 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大眾과 讀書

일반대중이 冊을 읽지 않는 要因에 대해 筆者는 첫째로, 現代의인 讀書價値觀의 문제와 둘째로, 읽고 싶은 冊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사회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 본다.

讀書에 대한 傳統의인 價値觀이 讀書增進의 장애가 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또 무시되기 쉬운 요소이다. 일반 대중이 冊을 찾게 하기 위해서는 冊을 찾

는 이유를 계속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들은 독서의 이유를 묻는 일을 어리석게 생각해왔다.

책을 읽는다는 그 자체로서 의의가 있다는 求道者의인 입장을 즐겨 취했다. 歷史的으로 볼 때, 活字의 發明이 앞선 것은 사실이나 印刷術이 機械化되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使用되는 文字가 漢字와 한글로 계급적으로 區分되었다는 사실은 冊이 大衆化되지 못하고 學者, 僧侶 등 일부 특수층의 專有物로 되어버린 要因이기도 하다. 이렇듯 특수층에 치우친 讀書는 당시의 주요 학문이었던 儒學을 중심한 내용으로 物質을 輕視하고 觀念的이며 倫理的인 面에 치중하게 되었다 본다.

冊은 인간의 마음을 기를지게 하고 진리를 가르쳐준다고 믿었지만 우리 생활을 잘 살게 하기 爲한 道具로서 인식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

日帝時代 朝鮮總督府令 第57號(小學校 規定 及 普通學校規定 中 改正に 關する 訓令)만 보더라도 「職業에 대한 堅實한 思念을 주고, 勤勞를 愛好하고 興業治産의 志操를 鞏固케 하며 또 自營進取의 氣象을 기르고, 한갓 讀書教育의 弊에 빠져서 受業의 効果로 오직 俸祿으로 입고 먹으려는 잘못된 志向을 矯正하라」는 句節이 있는 바 當時의 「讀書」에 대한 社會認識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계문명의 발달과 사회생활이 극도로 다양해진 오늘 날의 大衆은 學者, 文筆家, 學生을 포함한 직업적인 독서층이나 冊을 읽는 것이라고 그릇 판단하는 경향이 많다. 讀書人은 착한 사람이긴 하나 現代의 생존경쟁에서 낙후되기 쉽고 讀書가 좋은 일이기는 하나 物質과 安逸이 社會價値를 지배하는 오늘 날 現代感覺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讀書는 現代社會에서 폐쇄적이고 유리된 분위기에서 樂으로 즐기는 것으로 생각하니 靜的이고 消極的인 自己滿足으로만 그친다는 옳지 못한 느낌을 일반 大衆들이 갖게 되었을 것이다.

讀書가 現代생활에 있어서 自己向上을 위한 필수적인 武器로서 인식되어야만 先進 社會처럼 讀書가 生活化되고 讀書를 통한 物質生活의 合理化와 思考生活

의 科學化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다음의 문제점은 大衆이 冊을 구할 수 있는 사회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모처럼 마련된 讀書能力이 死藏되고 있다는 점이다.

冊을 읽고 싶어도 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는 欲求는 체념상태로 되어 버리고 讀書習慣은 低下되고 있다.

옛날에는 印刷의 機械化가 늦고 文字의 장애가 있어 冊이 大衆化되지 못했고, 현재는 國民所得에 비해 책값이 비싼데다가 大型化된 장식용에 치중하고, 圖書館數나 利用의 習慣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대중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의 잘못이다. 각종 메스컴에 시달림을 덜 받는 農民, 오락시설 등이 만족치 못한 都市의 서민층이야말로 오히려 읽을꺼리를 구하고 있는 潛在讀書層인 것이다.

讀書施設 확장

일반大衆에게 冊을 가까이 하는데에는 冊을 購讀케 하는 방법도 있으나 대중 가까이에서 讀書施設을 마련해 주어 잠재독자를 개발해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읽는 權利야 말로 1970年代 우리의 目標」라고 한 님슨의 宣言도 있지만 大衆에게 讀書施設을 마련해 주어야 함은 단순한 文化, 福祉의 영역을 넘어 읽을 權利를 찾는 일종의 「民權運動」이라 본다.

20年間 기회있을 때마다 의처은 公共圖書館 1個館當 人口比例가 外國과 얼마나 차이가 나고, 人口 1人當 圖書館藏書數가 어떻다 함은 이미 다시 나열할 흥미조차 없었다.

民權運動은 빼놓아지지 않을 때는 힘을 뭉쳐 爭取하는 길이 빠르다. 마을文庫 運動은 讀書의 기회가 거의 없는 農漁民들에게, 國民讀書聯盟은 都市근로층을 비롯한 全民衆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 가까이에서 조그마한 讀書施設, 즉 文庫를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마을文庫는 1960년에 創案, 1961년부터 그 普及運動을 始作하여 近 20,000餘個의 文庫를 設置하였다. 그러나 農村에 대한 讀書運動은 그보다 훨씬 전, 1951年 筆者의 個人藏書로 만든 私立 蔚山無料圖書館 시절부터 시작하여 圖書館協會 初代 事務局長 일을 보면서도 慶州市立圖書館을 中心으로 번두리 農村에 冊보내주기운동을 벌였었다. 그러나 이는 失敗였다. 독서시설의 거점인 冊藏과 組織이 없이 一方的으로 冊만 보내주는 것은 自意識을 길러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새로운 方案을 創案, 마을文庫運動을 시작하여 圖書館界와 관계정부기관, 언론계의 도움으로 오늘에 이른 것이다.

한편 國民讀書聯盟은 1965년에 마을文庫 부대사업으로

로 創立하였으나 재정난으로 활발한 사업을 전개치 못하다가 1969年 社團法人體로 기구를 強化함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착수케 되었다. 10名 以上の 종업원을 가진 소규모 근로직장에 「職場文庫」, 各軍 部隊單位의 士兵을 위한 「軍入文庫」를 主軸으로 하여 교도소, 구치소 등에 「敎養文庫」, 고아원 등에 「靑少年文庫」, 庶民아파트에 「아파트文庫」 등을 설치하고 있다. 大型 또는 小型 책장을 보급하고 圖書를 마련케 하여 讀書入口를 均화, 文庫의 管理運營體(讀書會)를 조직한다. 이들 文庫의 三構成要素는 「책장」 「독서회」 「선정도서」인데 도서관의 기본요소에 맞추어 「책장」은 도서관 건물구실, 「독서회」는 직원구실을 하게끔 하고 있다. 현재 수적으로는 많지 않으나 各種 類型으로 그 運營方法, 成果 등을 試驗中에 있다.

마을文庫를 비롯한 이들 文庫는 앞으로 그 地域社會 公共圖書館의 관장아래 도서관 조직망의 최말단 조직으로 활용될 것이다.

작년에 文公부와 共同主管으로 시작된 「大統領旗爭奪國民讀書競進大會」는 民衆 밑바닥에 組織된 讀書人口의 사기를 높이고 讀書施設의 普及를 促進키 爲해 一般部, 職場部, 軍入部로 나누어 每年 實施케 된다.

마을文庫는 잘 되고 있는가?

마을文庫運動을 시작한지 10년이 되는 오늘 날 일반에서는 그 성과를 과대평가하거나 지나친 기대를 갖는 예가 적지 않다. 그러나 실무자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볼 때 부끄러움이 먼저 앞선다. 20,000개라는 급속적으로 팽창된 양적인 증가에 비해 文庫의 藏書와 運營은 미처 이를 뒤따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을文庫가 실패한 것이라고는 더구나 생각치 않는다. 마을文庫가 설치되는 수대로 처음부터 成功할 수 있는 사회여건, 그만큼 民度라면 애초부터 이러한 運動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매년 1회씩 전국적인 文庫實態調查를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정확한 運營實態를 파악할 수는 없고, 대체로 보아서 전체문고중 3분의 1은 成功, 3분의 1은 現狀維持, 3분의 1은 多眠狀態로 본다면 큰 착오는 없을 것이다. 날이 갈수록 부락민들의 이해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운영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마을文庫의 근본원리는 일단 설치된 후부터는 문고 회원들이 自力으로 마련한 自體資金으로 冊을 購讀하는 것인데 쌀한 말을 팔아야 책 1권을 사볼 수 있는 오늘의 농가소득으로는 住民들의 독서의욕을 충족하기란 너무나 힘든 일이다. 때문에 年間 數萬圓 상당의 冊을 購入하는 文庫가 있는가 하면 단 몇 百圓 짜리 冊 1권을 사보지 못하는 문고도 있기 마련이다.

오늘의 마을文庫를 필자 입장에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선 “도서관 건물 구입을 하는 책장 만들기예 성공하였고, 이것은 알맹이(冊)를 갖추게 하는 準備段階에 성공한 것”으로 인정하고 싶다는 정도이다.

마을文庫의 現況과 展望

1961年 마을文庫本部를 창립한 후 초창기에는 규모도 얼마되지 않고 하여 筆者 私費로 運營을 해나가다가 64년부터 國家의 財政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67년부터는 정부에서 事業費만 지원받게 되고 事務費, 人件費를 비롯한 運營費는 自體에서 부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自體收入이 전혀 없는 本會로서는 存廢危機에 놓이게 되었다. 몇달간 다시 筆者 私費로 지탱해 오면서 막한 實情을 각계에 호소, 천신만고 끝에 當時 李厚洛 靑瓦臺 秘書室長을 대표로 추대, 수명의 실업가들로부터 經常費 지원을 받게 되었다.

69年 李厚洛 理事長의 駐日大使 부임으로 金濟源(前 京鄉新聞社長)님을 代表로 추대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經費支援處로부터는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事務局 中心으로 事業을 해나가고 있다.

금년 7월말 현재 각 도별 문고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은데, 20,310개 문고에 文庫當 平均 67卷의 장서와 32名의 讀書會員을 갖고 있는 셈이다.

마을문고설치현황

1971. 7. 31현재

도	별	문고 수	회원 수	장서 수
서	울	10	324	1,396
부	산	75	1,466	6,382
경	기	3,131	96,151	202,715
강	원	1,251	39,876	83,933
충	북	1,069	34,208	71,623
충	남	2,241	65,268	134,763
전	북	1,258	40,284	84,385
전	남	3,084	93,544	201,041
경	북	3,981	122,292	266,788
경	남	4,005	124,608	258,213
제	주	205	8,558	24,373
계		20,310	626,591	1,335,612

本會는 전국 농어촌 30,000여개 행정이동단위에 설치 완료할 것을 1차목표로 하여 추진중에 있다. 어떻게 보면 設置된 文庫의 質의 向上에나 전념할 것이지 量의 증가를 서두를 필요가 어디 있나 하고 양적인 과시에 치중하는 듯한 오해를 받기도 한다. 충분히 一理가 있고 납득이 가는 얘기이지만 戰鬥에는 戰略과 戰

術이 있기 마련이다. 마을支庫는 無知와의 戰鬥라 본다.

筆者의 戰略은 마을文庫 사업을 거대한 水力發電所 건설에 비유하고 있다. 3단계(里洞長이 배치된 行政里洞數)라는 목표는 發電機를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水量으로 보며, 또한 이 運動을 “行政”이란 이름의 레일 위에 올릴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荒蕪地에 뿌린 씨앗을 가꾸는데 호미나 삽만을 갖고는 부족하다. 헬리콥터를 동원하여 비료를 뿌리고 除草劑를 살포해야만 可能하다.

文庫設置가 완료되고, 土臺가 잡힌 다음에는 각 마을文庫는 그 지역사회 公共圖書館에 귀속되어 도서관이 管掌, 指導하고 公共圖書館의 分館 내지는 최말단 조직으로 活用될 것이며 또 그렇게 됨으로서 만이 公共圖書館의 機能이 地域社會 전체에 미치는 결과가 되리라 생각한다.

한편 公共圖書館이 아직 없는 고장에서는 지방공공도서관 설립 촉진에도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왜냐하면 公共圖書館 없는 마을文庫를 생각할 수 없으며 마을文庫 없는 農村地域 公共圖書館을 생각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공도서관이 없는 곳에서 마을文庫會員들의 여론이 공공도서관 설치를 촉구한 전례들이 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

讀書運動의 虛와 實

앞에서도 말했지만 讀書運動 團體가 많아졌음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冊을 많이 읽고 있지 않다는 것의 역설적인 표현이다. 단지 밖으로 외치기만 할 경우, 실체는 그렇지 않은데도 讀書風土가 제법 조성되는 모양이구나 하는 착각을 줄 염려도 있긴 하지만 冊 읽자는 단체가 많아졌다 해서 결코 害로운 점은 없다. 단지 無害小得보다는 無害多得의 方向이 아쉬운 만큼, 效率적인 運動이 모색되어야겠다는 점이다.

어느 社會運動이건 具體性을 띄우지 못한 것은 成功하기 어렵다. 독서운동이 口號만 웨치는 독서운동으로 끝나는 결과가 이땅에 없도록 해야겠다. 여러 형태의 독서운동이 소기의 목표달성을 위해 각각 자기나름의 특색을 지니고, 질서있고 유기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루 빨리 1市郡에 1個 公共圖書館이 設置完了되는 날, 우리가 전개하는 各種 文庫運動은 圖書館을 頂點으로 바람직한 지도체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며 각계에서 벌이는 독서운동도 公共圖書館을 中心으로 調和를 이루게 될 것으로 믿어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 간절하다.